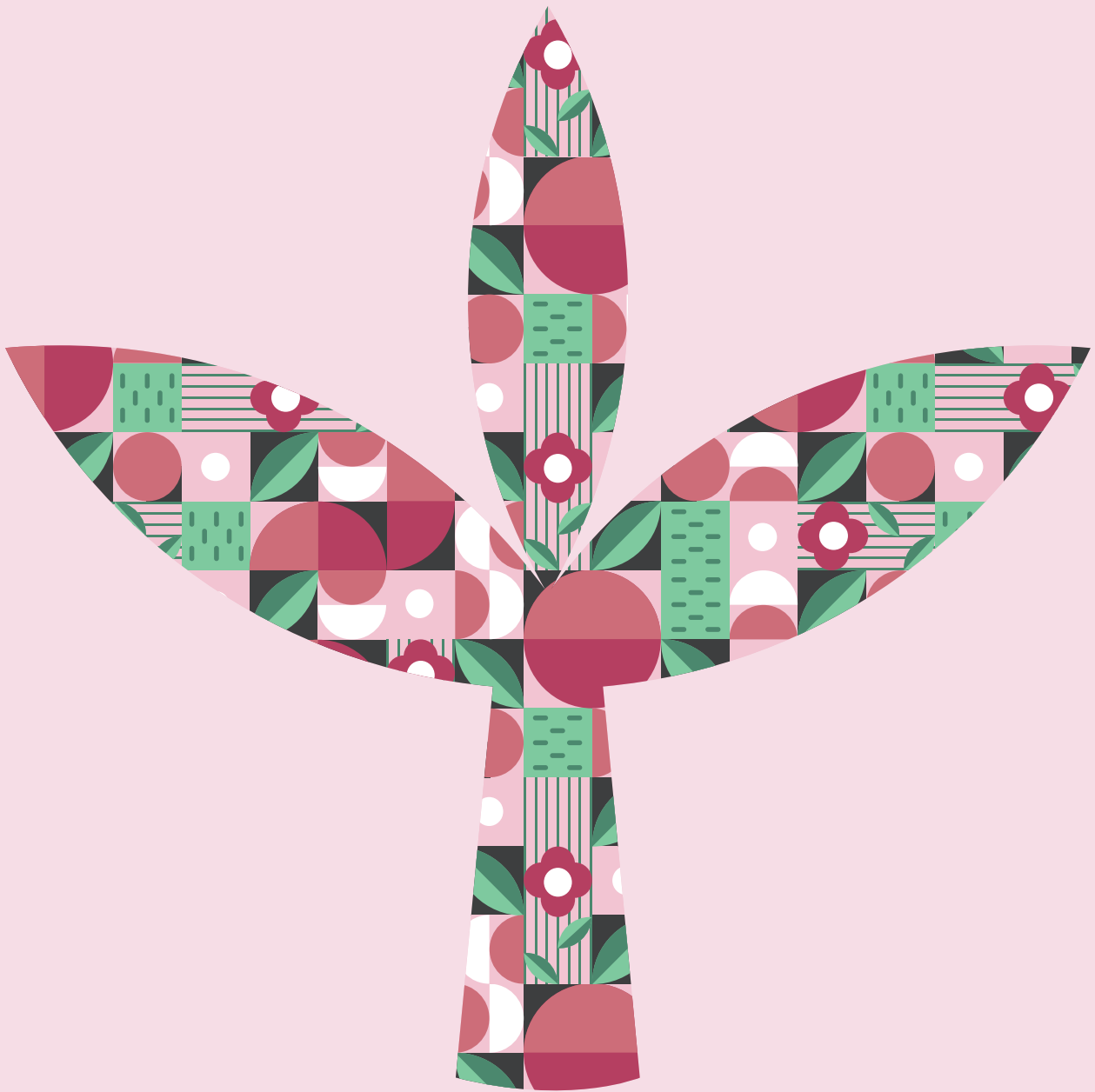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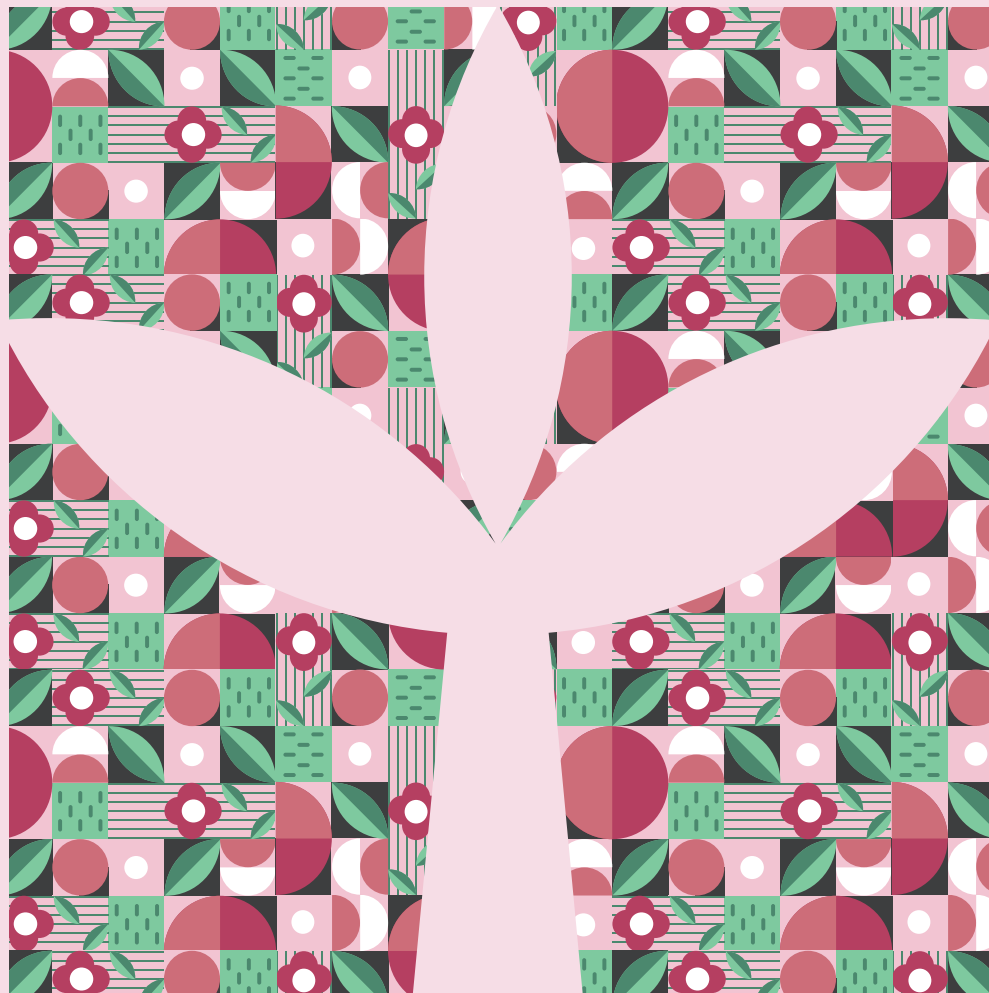
Magazine

새벽종

2025 01+02 제18호



New 새롭게



경북 포항 간절곶의 일출

THEME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새마을운동

365일 매일 똑같이 해가 뜨는 것 같지만, 매번 똑같은 해는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아, 어제와 다른 다짐과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어야 새해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다짐합니다.

- ▶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 📷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 📘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 📝 blog.naver.com/letssaemaul
- 🗣️ pf.kakao.com/_zNxkxT

올리다

06

새마을 줌인
중앙회장단 새해 인사
뱀띠 새마을가족 새해 인사

14

새벽종 소리
2025년 새마을운동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깨우다

22

새마을 인터뷰 ①
경남 통영시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

26

새마을 인터뷰 ②
서울 성북구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

16

반가운 올림
젊은 감각으로 돌아온
새마을노래

20

새마을운동 일기
새해 떡국 나눔

30

청년 새마을 특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34

지구촌 새마을, 함께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

36

희망 에세이
새해에는 칭찬으로 모두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요



Cover Story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희망의 새싹이 피어나 꽃이 피기 바라는 마음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2025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만나다

38

쉽표 여행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곳, 포항

42

생생정보
눈 오는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

44

새마을 포커스

58

새마을라운지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의 첫 아침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애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풍요와 지혜, 그리고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이루듯,
2025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지 5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새마을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여러분께도
크고 작은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근간이신 지도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만 보였던 도전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새마을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운동의 보람찬 성과들은
오롯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애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에 걸맞게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미래로, 세계로 확장하며,
더욱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도선부(水到船浮), 즉 물이 차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탄탄한 실력을 키우고 책임을 다한다면,
새마을운동은 더 큰 도약과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맞이하는 을사년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정성을 담아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희망을 안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마을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새마을운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민운동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초심대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고,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김광림**



가장 위대한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청사(靑蛇)의 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새마을가족과 함께 큰 희망을 품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으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갈등과 분열은 지속되고
정신적 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나아가 미래에도 가장 위대한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 저의 다짐은 새마을지도자를 더욱 배가하고,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지도자분들을 더 배려하면서
어려움은 나누고 해소하며,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궁극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다짐과 함께 새마을운동이
당면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장 속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달려나가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세상을 선도하는 새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양윤호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을사년의 첫 걸음



존경하는 전국 새마을부녀회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녀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졌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부녀회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이웃과 소통하며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작은 실천으로부터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녀회 여러분의 손길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2025년은 새마을운동 5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부녀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만물이 더불어 사는 삶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굳건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부녀회의
따뜻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시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바로 우리 새마을부녀회의 힘입니다.
을사년 올 한 해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부녀회와 함께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김정임

내실을 다지며 새출발하는 직장새마을



사랑하는 직장·공장 새마을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힘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장 회원사 여러분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청년 새마을조직에게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고,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국가 아이들에게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따뜻한 후원자가 되어 주며,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몸소 실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더 큰 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직장회원사 여러분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직장·공장 새마을가족 여러분!
조직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원동력은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올해 직장·공장중앙협의회에서는 조직 전반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조직 기반을 다지고, 시대에 맞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직장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을사년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우리 함께합니다.
지난 한 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신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책



전국의 새마을문고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갑진년을 마무리하고 또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 지역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새마을문고 운동에 열정을 다 하신 전국 새마을문고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그동안 책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오늘을 고민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첨단 산업의 발달로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책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깊고
풍성하게 가꿔주고 미래의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새마을문고 가족 여러분!
책을 읽으면 마음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를 밝혀줄 독서 습관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독서문화 운동을 적극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꿈과 목표를 모두 이루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김종철




성락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협의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을사년 뱀띠 해에는 무료로 임대받은 텃밭 100평에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감자를 심어 나눔을 실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양말끈 자원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회원 배가, 동전모으기 운동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옥동
충북 청주시 용암1동부녀회장

2025년 을사년, 저는 더 나은 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동료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활기찬 부녀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옥숙
충남 천안시 백석동부녀회장

2024년 백석동부녀회장으로 선임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회원들의 협조와 격려로 1년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김용관
직장·공장 제주 서귀포시협의회장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 청사(靑巳)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신비롭고 지혜로운 기운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국의 새마을가족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푸른 뱀의 역동적이고 추진력 강한 열정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더욱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며 새마을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乙巳年 뱀띠 새마을가족이 전하는 새해 다짐과 새해 인사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뱀띠 새마을가족들의 다짐을 들어봅니다.




진보영
경북 청도군 풍각면 문고지도자

2025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가복(家福)의 신이 청도의 맑을 청, '淸'과 을사년의 푸를 청, '靑'이 어우러져 새벽중 애독자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새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땅의 뱀은 다산과 재생과 풍요로 치유의 힘을 주고, 또 청색은 바다와 하늘의 색으로 자연의 무한한 힘과 신비로 평화로운 기분을 유발하여 전 국민에게 활기찬 기운을 재충전해 주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새마을문고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벽중 애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기연
경남 창원시 명곡동문고회장

새마을운동과 함께한 17년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새마을문고를 통해 책을 가까이하고 이를 발판 삼아 2025년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에 도전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 나 자신을 위해 학문이라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일이 있다면 지금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강민구
울산 동구 청년새마을연대 부회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던 봉사활동을 2024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봉사활동을 얼마 해보진 않았지만, 봉사를 시작하니 나름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행복한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처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신규 새마을회원님들이 넘쳐나는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채영
부산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회장

2024년 한 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평가에서 대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가 연말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학 새마을동아리 친구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듯 지난 걱정과 고민 모두 벗어버리고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뱀띠 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을싸 좋~다^^

2025 새마을운동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5돌이 되었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지향해 온 새마을운동이 2025년을 맞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필요한 추진방향을 키워드로 요약했다.

글. 편집실

2025년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으로 본 중요 키워드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디지털·온라인 전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순히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세대와의 소통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연수원 시설 및 운영개선

1983년 준공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교육 프로그램, 수익사업, 홍보, 운영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명실공히 새마을지도자 교육기관으로써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다.



지구촌새마을운동 확대

세계 45개 SGL회원국의 상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협력국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도 청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정보를 디지털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누구나 새마을운동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협력 기능의 보강과 연대 강화

KOICA, 새마을재단, 농촌진흥청 등과 연대를 강화하여 해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마을운동 1:1 결연·후원 사업 도입

세계 45개 SGL회원국과의 청소년 결연 사업 및 1:1 후원을 통해 이들이 각 국가의 새마을지도자를 거쳐 사회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한다.

새마을회원 배가 노력

많은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수 확보 및 활성화에 힘쓴다. 리동단위 소속회원을 점검하고, 직장·공장협의회 회원 자격을 완화해 회원 배가를 추진한다.



새마을운동에 경(敬) 사상을

새마을운동에 퇴계 이황 선생의 성학십도의 경(敬) 사상을 접목해,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한다.

녹색·건강·문화 새마을 가꾸기

녹색, 건강, 문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확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든다.



VISION HOUSE



2025년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

기본 정신

근면·자조·협동

비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추진 방향

- 01.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운동
- 02. 새마을운동의 디지털·온라인 전환
- 03. 연수원 시설 현대화와 운영개선
- 0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확대와 심화
- 05. 국제협력 기능의 보강과 연대 강화
- 06. 새마을운동 세계화도 청년 중심으로
- 07. 새마을운동 1:1 결연·후원 사업 도입
- 08. 새마을조직 점검과 회원 배가 노력
- 09. 새마을운동에 경(敬) 사상을
- 10. 녹색·건강·문화 새마을 가꾸기

녹색 새마을

- 육묘와 조림
- 환경정화활동
-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 자원순환 활동 등

건강 새마을

- 저출생·고령화 대응 운동
- 사회갈등 해소활동
- 나눔·돌봄 활동
- 재난·재해·구호활동 등

문화 새마을

- 지역·문화축제
- 배려·공경문화운동
- 독서·문화·예술활동
- 나라사랑활동 등



젊은 감각으로 돌아온 새마을노래

한경훈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노래에는 묘한 힘이 있다. 특히 노래 가사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일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로 시작하는 새마을노래가 흘러나오면 희망찬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와 기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세월의 흔적 때문일까? 지금 듣기에는 조금 단조롭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새마을노래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됐다.

글. 김형일 사진. 한경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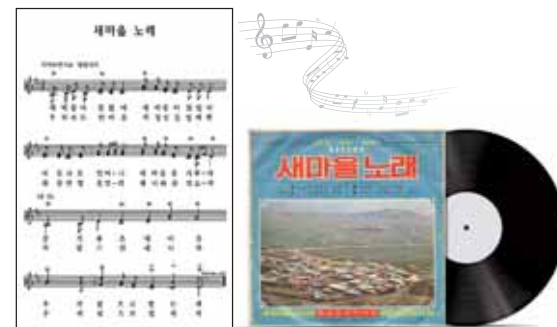
귀에 익숙한 새마을노래

새마을노래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익숙한 곡이다. 특히 70~80년대를 지나온 세대라면 '모르면 간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귀에 익다. 새마을노래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커다란 확성기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새마을노래가 시작되면 당연한 듯 아이들은 눈을 비비고 일어났고, 어른들은 저마다 빗자루나 삽 같은 도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새마을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청소하고, 담장을 고치고, 마을길을 넓히는 등 마을 가꾸기에 열중했다.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후렴구가 들릴 때면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마을노래도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 새마을노래가 가진 힘은 그때보다 많이 줄어든 기분이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새마을노래가 세월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탓도 있다. 낡은 음원과 시대를 반영한 구식 가창 방식은 새마을노래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원곡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일까, 새마을노래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리메이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한경훈 교수가 과감하게 나섰다.

원곡의 힘과 편곡의 어려움

한경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편곡자다. 이름이 알려진 음악밴드에서도 활동했고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유명 영상음악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그러나 새마을노래를 새롭게 편곡하는 일은 그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원곡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한경훈 교수는 음악 편곡 외에도 음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상과 역사적 의미를 뛰어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마을노래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작곡하고, 작사까지 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로는 매우 신선했던 곡이었고, 실력 있는 합창단의 합창과 유명 작곡가의 편곡으로 원곡이 가진 힘을 더욱 배가시켰다. 때문에 한경훈 교수도 원곡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편곡을 했다. 과거 세대와 현 세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원곡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깨끗한 음질과 현대적인 감각의 악기 편곡, 그리고 시대에 맞는 가창 방식을 통해 새롭게 해석했다.

새마을노래 각 절에 담긴 의미

한 교수는 편곡을 하면서 새마을노래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새마을운동의 기상을 표현하고, 새마을정신이 젊은 세대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곡으로 새단장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세

대가 함께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4절의 노래마다 각기 다른 음악적 콘셉트를 주고자 했다.

오케스트라 선율과 트럼펫의 힘찬 소리가 어우러져, 전주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의 기상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웅장함을 더하고, 트럼펫을 활용해 아침을 깨우는 '새벽종'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1절에서는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베이스 라인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했다. 2절에서는 원곡의 폴카 리듬을 차용해 전통과 익숙함, 그리고 '추억'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3절부터는 힘 있는 느낌의 드럼 세트를 가미해 '젊음'을 표현했고, 4절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현악기 라인으로 '역동성'을 부여해 세계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을 들려주었다. 마지막은 여유로운 박자와 함께 여운을 남기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어 감동을 더했다.



이러한 콘셉트 덕분에 새로 편곡된 새마을노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듣기 좋으면서 추억과 역동성, 젊음을 모두 갖춘 새로운 노래로 편곡됐다. 다양한 세대의 최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하여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보컬에는 젊은 전공 가창자들과 조은경, 서근영 등 관록 있는 음악가들이 참여했으며, 연주 파트에서도 서대광, 우성민 등 특급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후반 작업에는 미국 네슈빌의 스티브 나바로(Steve Navarro) 음향감독 등 관록 있는 전문 음악인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곡은 지난 2024년 6월 드디어 지니와 멜론, 플로 등 음원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새로운 새마을노래는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편곡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웅장한 음악으로 노래가 가진 힘을 한층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

한경훈 교수는 이러한 편곡작업 외에도 대중문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술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중예술 학술단체를 설립하여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문 20인조 이상의 대형 재즈 오케스트라 라인 '131 오케스트라'의 제작자로 활동하며 젊은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경훈 교수는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K-POP, K-DARMA 등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보호장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경훈 교수는 "주어진 길이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야 한다"며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한 교수의 이러한 열정과 조연은 55주년이 된 새마을운동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세계로 웅비하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기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교수가 편곡한 새마을노래가 더 많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



← 새마을노래 메이킹 영상

따뜻한 떡국으로 사랑을 나눠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2025년 사랑의 떡국 나눔



우리 민족은 설날이면 긴 가래떡을 썰어 떡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설날 떡국을 먹는 풍습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입니다.
 떡은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떡국을 나누며 서로에게 새해 복을 기원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국 새마을(지)회는 설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떡국떡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새벽중 퀴즈

Q. 2025년은 60간지의 42번째 해로 “○○년” 푸른뱀의 해라고 합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으신 분 중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마을, 어른들의 젊은 날을 되찾다

2024 좋은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 통영시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

남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맞이하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이곳에는 468세대가 모여 사는 도남주공아파트가 있다. 낮은 아파트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커켜리 쌓여 있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다. 특히 마을공동체가 여는 특별한 '학교' 덕분에

함께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어 더욱 그렇다.

글. 임영현 사진. 김기현,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사진 왼쪽부터) 강해경 봉평동협의회장, 김전옥 추진위원장(마을 공동체), 제승란 도남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서미선 봉평동부녀회장, 이연희 봉평동문고회장

“**‘좋은 이웃’이란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

마을공동체 위해 힘 보탠 많은 이웃들

2024년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에는 경사가 났다. '2024 좋은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심양면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한 이웃들의 역할이 컸다.

“1,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1,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통영시새마을회는 4개 정식단체와 7개 협력단체가 새마을운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족처럼 화합과 단합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정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이 소개한 통영시새마을회의 화합과 단합은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가 빛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24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퇴임한 읍면동회장 30명이 마음을 모아 통영시새마을회에 후원회가 새로 생긴 성과만큼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통영시새마을회의 좋은 성과로 기록됐다. 통장인 김전옥 추진위원장(전 봉평동새마을문고 회장)과 제승란 도남주공아파트 관리소장, 강해경 봉평동협의회장, 서미선 봉평동부녀회장, 이연희 봉평동문고회장 등 5명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른신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주민과 함께할 의미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바로 '학교 다녀오

겠습니다'라는 사업이 탄생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 이웃과 함께하시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는 봉평동 새마을단체와 김은정 사무국장 등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전옥 추진위원장의 말처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는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탤다. 브레드이발소청년새마을연대와 랠라청년새마을연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통영해양경찰서 홍보팀, 봉평동주민센터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했다. 5명이던 추진위원은 3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소한 일상을 주고받는 좋은 이웃

2024년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운영한 학교는 '좋은 이웃을 만나러 가는 학교'였다. 이연희 문고회장은 여기서 '좋은 이웃'이란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라고 소개했다.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나가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 웃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곧 좋은 이웃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 단순한 목표를 위해 많은 분이 재능을 나눠주셨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진행하면서 성함과 얼굴이 익숙한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새 학기를 열듯 도남주공아파트 공동체는 2024년 5월에 새마을지도자와 주민, 어린이집 원생 등이 모여 공용화단에 수국을 심는 첫 수업을 진행했다. 6월에는 통영해양경찰서 홍보팀의 장수기원 사진 촬영, 이은정 문고 미수동분회장의 환경 수업으로 특별활동을 진행했다.





7월에는 미니 케이크도 만들었다. 장수기원 사진 촬영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 케이크 만들기 2023년 9월부터 활동 중인 브레드이발소청년새마을연대의 재능 기부로 가능했다.

“미니 케이크 만들기 참여 어르신 중 마을축제에서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우리 동네 요리 강사 5명을 선발한다고 알려드리니 배우는 태도도 사뭇 진지했습니다. 요리 강사로 임명장도 받으시고, 나중에 학사모 쓰시고 졸업 사진을 찍으시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명문대 졸업생보다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웃과 나누는 뿌듯함을 선사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 곽순정 브레드이발소청년새마을연대 회장

8월에는 유상득 통영꽃판매장 대표의 지도와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의 지원으로 꽃꽂이 교실도 열었다. 우리 동네 요리 강사처럼 꽃꽂이 실력을 뽐낸 어르신들을 우리 동네 미술 강사로 선발했다.

“꽃꽂이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미술 강사로 선발될 수 있었나 봐요. 9월 10일에 열린 마을 축제에서 재 활용 음료병에 꽃을 담아주는 활동을 했어요. 통영시새마을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 ‘우리 동네 미술 강사’이자 졸업생 윤선자 어르신

‘우리’에 관심을 두는 넓은 이웃

10월 산청군으로 떠난 가을 소풍, 11월 졸업식 개최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참여를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회가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의 표정도 화사하게 피어났다.

“처음 안내를 드렸을 땐 ‘뭐고?’하는 반응이셨어요. 매달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도 했죠. 단지에서 수업 신청하신 어르신을 뵈면 날짜와 시간을 여러



차례 알려드렸어요. 회차가 거듭되면서 어르신들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매월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어르신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기대만큼 만족도가 크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 제승란 관리소장

“오늘 오시는 날짜예요.”라고 전화 드리면 잊어버리고 계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근무 날짜를 바꾸시고 오신 분, 결석하지 않기 위해 병원 예약 날짜를 바꾸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뿌듯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라며 두려워하셨던 분들이 수업 후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 김전옥 추진위원장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이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수업 장소가 승강기가 없는 지하라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덕분에 관리소 직원들까지 함께하게 됐다. 관리소 직원이 대신 수업에

참여해 만든 꽃바구니를 해당 어르신께 전달할 정도로 도남주공 아파트 마을공동체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진심이였다.

“이웃을 위해 건강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무척 보람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 강혜경 봉평동협의회장

이렇듯 도남주공아파트 마을공동체가 만난 좋은 이웃은 아파트 거주자뿐만이 아니었다. 참여 어르신과 아파트 관계자들은 물론, 동참한 단체와 사람들까지 좋은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몹시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남주공아파트에서처럼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한다면 어디에선가 따뜻한 도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 회가 거듭될수록 가까워지는 이웃들 그리고 따뜻해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마을이 아닐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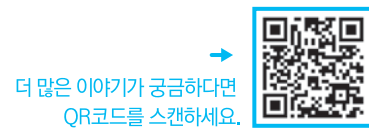
“ 회가 거듭될수록 가까워지는 이웃들 그리고 따뜻해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마을이 아닐까. ”

종이가 만든 작은 숲, 도서관에서 피어나다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
서울 성북구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

나폴레옹 힐이 쓴 <기록하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의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같은 많은 책들은 '기록이 지닌 힘'을 강조한다. 박기순 서울 성북구 성북동새마을문고 회장은 2024년을 시작하며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일지에 '전국 1등 도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12월 17일,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이 '2024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운영일지에 쓴 꿈은 이루어졌다.

글. 임영현 사진. 홍승진



2024년 '북정북정할 만해'로 북적북적

서울 성북구 성북동주민센터 4층에 자리를 잡은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보유한 책은 5,586권. 주민들은 한 번에 5권까지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다. 회원 30명이 도서관 운영에 함께하는데, 1997년 개관 당시부터 활동 중인 회원들이 많아 젊은 회원들이 이들의 열정을 직접 느끼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박기순 회장은 회원들을 '윤술'이라고 표현했다. 윤술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한다.

"호수같이 잔잔하고 평온한 인성을 지니고 계세요. 사랑과 존경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멀리,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동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어느 해보다 북적였다. 그 이유는 '2024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한 '북정북정할 만해' 때문이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는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매년 개최한다. 주민들이 읽은 책을 가져오면 새 책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다. 이 중에는 폐기해야 할 책이 섞여 있다. 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오래되어 책장에 비치할 수 없는 책도 발생한다. 박기순 성북동새마을문고 회장은 이러한 책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 '북정북정할 만해'를 기획했다.

"책을 그냥 버린다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계란판, 폐지 등을 갈아 종이죽을 만들고, 한지처럼 떼서 말리는 방식으로 재생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쓰임을 다한 책이 재생종이로 새롭게 탄생하듯 '북정북정할 만해'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사업명 '북정북정할 만해'는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한용운 선생의 호 '만해'와 마을 이름 '북정'에서 따왔다. 또한 '북정북정'은 'BOOK정BOOK정'이기도 하다.

성북동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이 있다.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뒤편, 한양도성 성곽이 보이는 언덕에 형성된 마을이 바로 북정마을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성북문화원 소개에 따르면, 조선시대 이곳 주민들은 무명이나 베, 모시 같은 포목을 삶아 말리고, 겨울에는 메주를 담가 시전에 납품했다. 인부들이



“
쓰임을 다한 책이
재생종이로
새롭게 탄생해
책갈피, 액자,
화분으로 변신
”



북적북적하고, 솔에서 '북적북적' 끓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북적마을 또는 북정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심우장과 북정마을이 있는 성북동의 별칭이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북적북적'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북정북정할 만해'로 이름 붙였습니다.”

버려질 책이 재생종이와 화분으로 새 쓰임 얻어

폐기를 기다리던 책은 주민들과 함께 만든 재생종이로 새 쓰임을 얻었다. 재생종이에 눌러 말린 꽃(압화)을 붙이고 손 글씨를 더했더니 독서를 돕는 책갈피로, 공간 분위기를 확 살려줄 액자로 변신했다. 2024년 9월에는 더 많은 사람과 소통했다. 9월 11일 성신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생종이에 마을 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27~28일 열린 성북동문화재야행에 참여해 재생종이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 대사관이 많은 성북동 특성을 반영해 튀르키예 모자이크 램프를 만들어 보고,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예향재에서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인 죽방울놀이 체험도 진행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같은 건물에 있는 한빛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여해 태극기를 그려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버려질 운명에 처한 책을 분쇄해 재생종이로 만든 성북동새마을작

은도서관은 더 나아가 책을 파냈다. 책 한가운데 동그랗거나 네모난 구멍을 파서 화분 넣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자라는 데 많은 양의 물이 필요 없는 다육식물을 심어 책 자체가 화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식과 지혜를 키우는 책이 '북정북정할 만해'를 통해 생명을 키우는 화분이 됐다.

“책을 파내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갔어요. 두꺼운 책은 한 권으로, 비교적 얇은 책은 몇 권을 겹쳐 화분을 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파내기 힘든 딱딱한 표지는 그대로 남기고 끈으로 고정해 장식하는 등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친환경 작품을 만들었다. 2024년 10월에는 재생종이와 색종이로 만든 종이학 3,000마리로 벽화를 꾸미기도 했다.

“종이학 벽화를 만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종이학 접는 방법을 잊으셨다며 다시 배우기도 하셨죠. 종이학을 접어 선물했던 학창 시절 이야기로 웃으면서 종이학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함께 만든 작품을 보면서 모두가 만족했어요. 주민센터를 찾은 분들에게 벽화 작품이 어떤지 여쭙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다', '멋있다'고 평가해 주셔서 부듯했습니다.”

이렇듯 '북정북정할 만해'는 오래된 책을 갈고 파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며 예술을 일상으로 불러들였다.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도서관으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2025년엔 주민들과 더 가까이

2024년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2024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뿐만 아니라 독후감 개인 최우수상, 독후감 단체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24년 11월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주최한 서울특별시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 독후감 개인 최우수상, 독후감 단체부문 장려상 선정이라는 성과도 냈다.

박기순 회장이 밝힌 2025년 운영 방향은 '느림의 미학'이다.

“지난해 전국 1등에 도전하면서 도전의 벽이 참 높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님들의 응원과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 임원진, 사무국의 응원에 힘입어 전국 1등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를 달려오며 놓친 작은 순간들도 있는 듯해요. 올해는 자연과 더불어 천천히 사는 여유 있는 삶, 작은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도서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2024년 빛나는 성과를 낸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 책과 예술을 매개로 더 가깝게 소통해 나갈 성북동새마을작은도서관의 행보를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



내 꿈을 찾는 곳!

새마을운동의 젊은 별들이 빛나다

「2024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대상」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2024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남도 천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2024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가 열렸다.

대상의 주인공은 1년 간 부산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온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였다. 공채영 회장은 새마을운동을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미래의 새마을지도자로서 당당히 나아갈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윤민지 사진. 전경민





간호학과 3학년 공채영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및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공채영입니다. 2024년 2월에 동아리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2021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새마을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0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홀몸 어르신 돌보기, 부산역 노숙인들을 위한 기부 및 배식 봉사, 일회용품 모으기, 탄소중립 강사 활동 등 42번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Q.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72개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열정적으로 활동해 수상자 선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수상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회장으로 취임한 후, '신라대학교를 전국에 알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기획부장, 홍보부장, 관리부장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실습과 강의가 겹쳐져 시간이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각 부장님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101명의 회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새마을회 사무직원분들께서 항상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Q. 대학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기 전, 새마을운동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새마을운동은 역사책에서 접하거나, 가끔 거리에 걸린 새마을기를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만큼 새마을운동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새마을운동에 진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2022년에 다른 대학 새마을동아리에 소속되어 연말평가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Q. 2024년,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가 활동하는 데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산에 적합한 활동은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고령화 사회, 노숙인 문제, 일회용품 사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홀몸 어르신 돌보기, 경로당 치매예방 교육 및 키트 활용, 혈압 측정, 삼계탕 나눔 활동을 진행했으며, 배식 센터와 협력해 부산역 노숙인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회원들이 쓰지 않는 물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컵과 병뚜껑을 모아 플라스틱 방앗간에 제출하고, 초·중학교를 방문해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며 친환경 키트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특히 주변 학교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동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뜻깊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요?

홀몸 어르신 돌보기 활동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진



행했어요. 그리고는 먼저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질환이나 가족구성원, 편한 방문 날짜를 여쭙는 등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다음 방문 때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쭙고 함께 장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분들과 나들이에 가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어요. 저는 방학 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초콜렛을 어르신과 함께 먹곤 했는데요. 함께하는 어르신께서 매우 좋아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활동이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서 애ত함과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Q.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거나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부산의 한 보호소와 연결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고, 보호소장님의 요청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산시 대학 연합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부산 지역의 각 대학 회장들과 매주 회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혈압 측정, 건강관리, 염색, 네일케어,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랑 손을 꼭 잡고 춤을 추셨던 어르신의 행복한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Q.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젊은 세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새마을동아리 활동 초반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데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교내에서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 것이었죠. 회원들이 다 함께 새마을 조끼

를 입고 다니니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잘 활용해서 한 명 한 명씩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곧 신입회원을 모집하실 텐데요. 예비 회원들에게 새마을운동과 새마을동아리의 장점과 매력을 마음껏 전해주세요.

'새마을동아리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답해요. 전 내향적인 성격인데 1년 전 해외봉사를 다녀온 후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 부회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알 수 있었지요. 신입회원분 아니라 기존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여러분 모두 새마을동아리 활동을 하며 최대한 자신의 열정을 느끼면 좋겠어요.

Q. 2025년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의 활동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5년에 국가고시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회장이 아닌 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회원으로 활동을 해도 차기 회장님과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고 기획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우리 새마을동아리 회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우리 부장님들, 101명의 회원 여러분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글로벌 리더로의 첫 걸음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2024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18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유학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분임토의와 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귀국 후 자국에서 새마을운동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구촌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싹을 틔운 두 유학생을 만났다.

글. 윤민지 사진. 전경민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지난 8월 케냐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현재 국제정책대학원(KDI)에서 개발정책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코이카(KOICA)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모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과정을 배우고 한국이 이룬 성과를 제 고국에도 적용하고 싶었어요.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저는 콜롬비아에서 왔고, 29세입니다. 현재 카이스트(KAIST)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있고 사회적 경제를 세부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이카 장학금 덕분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과 경제, 정치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서 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유학을 왔습니다.

Q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이번 학기를 마친 후 실습 프로그램인 프랙티컴(practicum)의 일환으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새마을운동은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전공하는 제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한국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고국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했지요.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콜롬비아 출신의 다른 유학생의 추천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발과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특히 새마을운동이 제 관심사와 맞는 농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라는 점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Q 교육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경기대학교 전은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사례를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지요.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저는 콜롬비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새마을운동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종종 갈등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 이를 극복한 점이 제게 큰 배움을 줬어요.

Q 새마을운동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사업을 돕는 방식이 특징이에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공동체가 협동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성과를 냈어요. 이러한 협동은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과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Q 첫 번째 분임토의 때 선정한 주제와 향후 액션플랜을 소개해 주세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케냐 빅토리아 호수 인근의 냇티케 지역에서 쌀농사를 증진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지역은 물과 땅이 풍부하지만 가난과 기술 부족 문제로 쌀농사에 실패했지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기술 교육과 장비 지원을 병행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저희 조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홍수로 인해 환경적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고, 이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Q 앞으로 한국 유학생들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 **아시엔와 실비아 아키소**_ 한국에서 지역 개발 정책과 성공 사례를 충분히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케냐에서 빈곤 퇴치와 지역 개발 사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협업하면서 제 고국의 연구와 정책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학 생활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르가스 알바레스 세르기오 안토니오**_ 경영학 석사를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지역 개발 관련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직속 국제협력위원회와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프로젝트와 농촌 개발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콜롬비아에 맞게 적용하고 제 고향에서도 새마을운동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개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새해에는 칭찬으로 모두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요



협의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님은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항상 따뜻한 온정으로 함께하여 웃음으로 가득한 내고장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현장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From_ **허정태** 부산시협의회장



“허정태 회장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_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

부녀회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시는 **황금덕 인천시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황금덕 회장은 녹색새마을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늘 함께하십니다. 4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입을 수 있는 옷과 폐현수막 등을 재활용해 장바구니를 비롯한 생활용품과 모래주머니 등의 재난용품 등을 만들어 전시회도 하고 기부도 하신다고 하네요! 황금덕 회장님 화이팅!

From_ **김숙자** 울산시부녀회장



“김숙자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해 주변에서 손쉬운 것부터 찾아서 해본다는 것이 벌써 4년이나 됐네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까지 받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와 인천광역시새마을부녀회원 모두가 합심해서 녹색·건강·문화마을 만들기예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황금덕 인천시부녀회장

직장·공장협의회

자체적인 수익 모델로 봉사활동 활성화에 힘쓰는 **최지형 직장·공장 경북 경주시협의회장을 칭찬합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직장·공장 경북 경주시협의회를 재탄생시켜 경주시새마을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회원 모집 활동과 적극적인 내부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더욱 강화하시고, 장애인 단체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의 필요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봉사 활동을 개척함으로써, 직장·공장 경주시협의회회의 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From_ **손효택** 직장·공장 울산 남구협의회장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에 열정적이시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펼치시는 손효택 회장님께서 칭찬메시지 주인공으로 추천해 주셔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고맙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은 이 기운과 열정으로 변화의 중심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최지형 직장·공장 경북 경주시협의회장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올해에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한다. 하지만 칭찬은 하면 할수록 늘다. 올해는 다른 이들을 보다 많이 칭찬하겠다는 다짐은 어떨까? 칭찬은 받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도 바뀌게 만드니까.

문고

정성스런 음식으로 경상북도 글·그림문화경진대회를 빛내주신 **김춘연 경북 예천군 문고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제24회 경상북도 글·그림문화경진대회를 경상북도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글·그림대회에 사용될 내빈 다과음식을 김춘연 회장님께서 사비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 덕분에 시군회장님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From_ **김희숙** 경북 영양군 문고지부회장



“이번 도청광장 글·그림문화경진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읍면문고회장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깨끗한 광장에서 진행된 대회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넘치는 상상력을 보며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지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김춘연 경북 예천군 문고지부회장



청년새마을

차분한 열정으로 청년새마을연합을 이끌고 계신 **김인중 전북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추천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면서도 새마을운동에는 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늘 감탄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From_ **남동현**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장



“칭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함께 소통하며,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_김인중 전북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해외봉사에서 솔선수범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박형빈 대동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해외봉사에 나가서 자진해서 대표를 맡으시며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강단있고 리더십있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From_ **명승아** 남서울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다른 이들이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_박형빈 대동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중)으로 이어집니다.

해 뜨는 도시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곳

포항 浦港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해가 바뀌고 새로 해가 뜨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특히 새해 첫 일출은 새로운 다짐과 함께 늘 설렘으로 다가온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인 포항은 새해가 되면 늘 화제가 되는 도시다.

글. 편집실

남한의 가장 동쪽, 해 뜨는 곳 포항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은 어디일까? 물론, 독도다. 섬을 제외한 휴전선 이남 우리나라 동쪽끝은 포항시 구룡읍 석병리다. 한반도 지도를 보면, 호랑이 등처럼 해안선이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뤄져 있는데, 남동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포항 영일만이고, 꼬리처럼 뭉툭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호미곶(虎尾串)이 있는 장기반도다. 이런 지리적으로 상황 덕분에 포항은 오래전부터 해맞이 명소로 이름이 높았다. 포항의 옛이름 영일(迎日) 또한 해를 맞는다는 의미다.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의 무대도 바로 포항이다.

📍 코스 1 _ 일출의 명소, 호미곶

해맞이로 유명한 관광지를 꼽자면 첫손에 꼽히는 곳이 호미곶 해맞이광장이다. 이곳은 상생의 손이라는 조형물로 더 유명한데, 두 개의 손이 한쪽은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벌리고 있고, 다른 쪽은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여기에는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어두운 새벽 바다 위에 있는 오른손이 떠오르는 해와 엮여 장엄한 풍경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맞이광장 한켠에는 2만인분의 떡국을 만들 수 있다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 이 가마솥에 떡국을 끓여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새천년기념관이 있어 포항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다. 국립등대박물관도 호미곶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코스다. 바다의 신호등이었던 등대의 역할과 해양 문화의 변천사를 둘러볼 수 있다. 특히 등대박물관 2관은 체험관으로 꾸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좋다.



코스 2 _ 영일만의 낭만, 영일대와 스카이워크

포항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영일만 일대다. 우선 영일만 한가운데에 위치한 영일만 해수욕장은 길이 1,750m, 폭 70m로 동해안 중 가장 규모가 큰 백사장이 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바다를 향해 맛집과 카페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영일만의 백미는 영일대라는 해상누각이다. 해수욕장 북쪽, 바다 위에 지어진 영일대는 낮에는 바다와 함께 낭만적인 정취를 보여 주며, 밤에는 야간 조명과 함께 환상적인 기분이 드는 장소로 야간에 더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한편, 영일대 인근에 있는 환호공원에는 스페이스 워크라는 이색적인 조형물도 있다. 포항에 본사가 있는 포스코가 기획·제작·설치한 스페이스 워크다. 철로 그려진 우아한 곡선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스페이스 워크라는 제목처럼 구름 위를 걸으며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25m 높이에서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과 영일만의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코스 3 _ 맛과 멋, 구룡포와 일본인 가옥거리

해산물과 함께 이색적인 풍광을 맛보고 싶다면 호미곶의 남쪽 구룡포가 제격이다. 구룡포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과메기로 유명하다. 겨울이면 항구 주변으로 줄줄이 널린 꽂치와 청어를 볼 수 있다. 인접한 구룡포 시장에서 해풍을 맞으며 생산된 신선한 과메기를 구매해 보자.

구룡포의 또 다른 명물은 일본인 가옥거리다. 100여 년 전 구룡포항이 어항으로 개발되면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구룡포에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때 생긴 일본식 가옥들이 몰려있다. 현재 500m의 거리에 80여 채 가량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과 따뜻한 목조가옥의 색감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로도 입소문을 탔으며,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SNS용 사진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코스 4 _ 파도와 바다, 전망대와 둘레길

파도와 어우러진 생생한 바다와 청량한 바닷바람을 맞고 싶다면 이가리 닷 전망대를 추천한다. 영일대 북쪽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바다를 향해 높이 10m, 길이 90m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었다. 작은 해안 바위들 위에 놓여 있어 데크 아래로 파도 소리가 울리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바닷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다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좋다. 호미반도 주변 25km에 조성된 이 둘레길은 항구와 방파제, 해안 데크, 어촌 등 다양한 바다 정취를 속속들이 느낄 수 있다. 또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 위치한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과 귀비고, 신라마을은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다. 🌐

함께하면 좋은 PICK

아이와 함께!

- ① 호미곶 일출
- ② 국립등대박물관
- ③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국립등대박물관과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시설과 함께 아이들에게 유익한 볼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연인과 함께

- ① 이가리닷전망대
- ② 영일대
- ③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바다와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가리닷전망대와 영일대를 추천한다. 일본인 가옥거리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자동차 드라이브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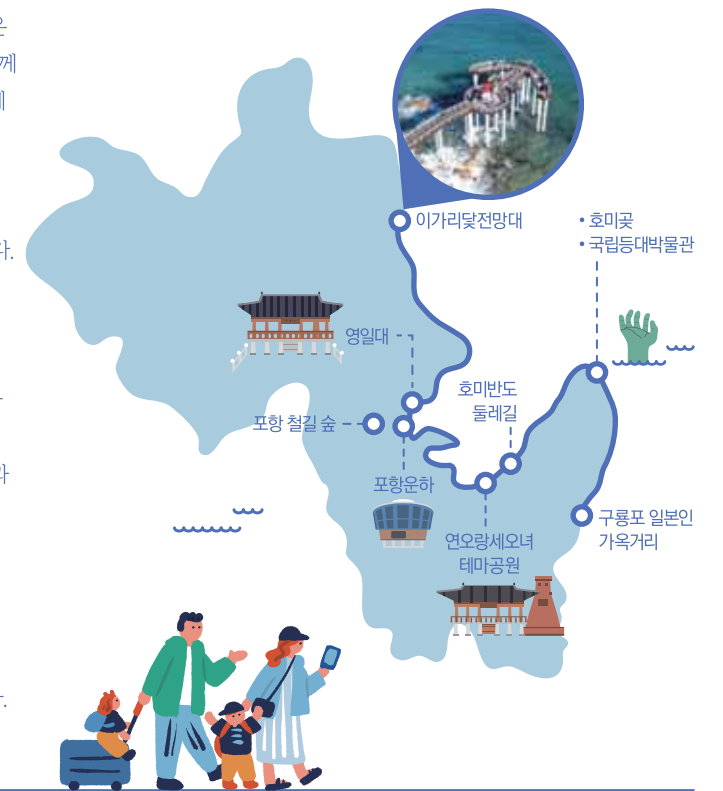
- ① 이가리닷전망대
- ② 호미반도 드라이브 코스

포항 북쪽으로 난 청하면해안도로는 바다와 함께 난 시원스런 길을 자랑한다. 또한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 청하공진시장과 이가리닷전망대도 들를 만하다.

해안 걷기와 함께

- ① 포항운하
- ② 포항 철길 숲
- ③ 호미반도 둘레길 4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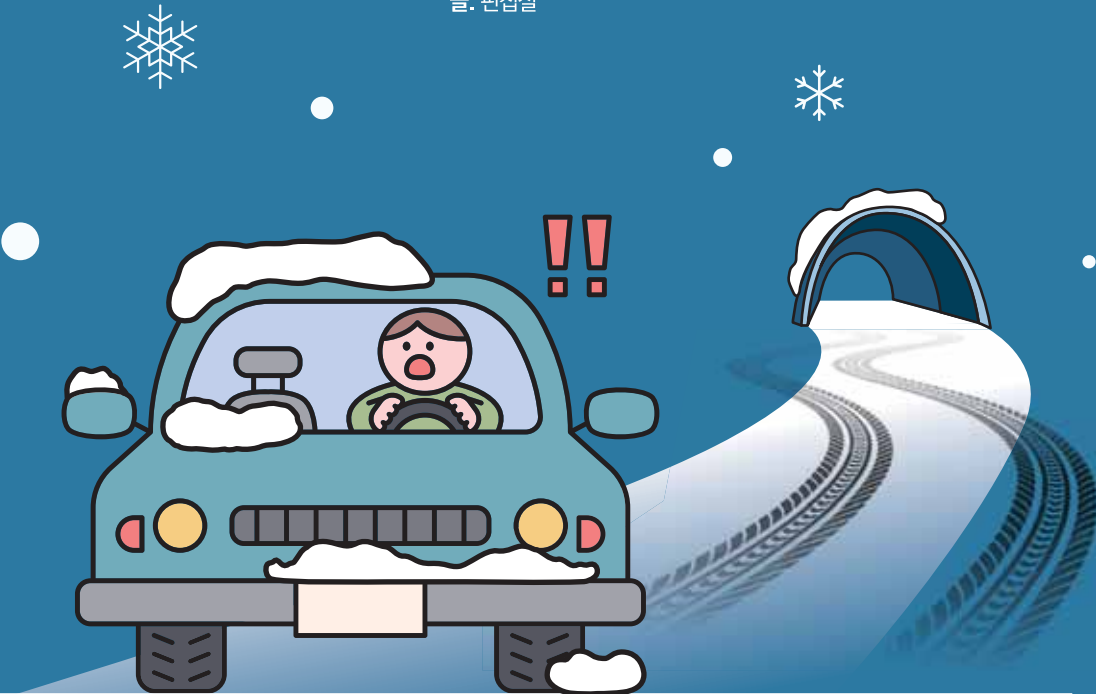
항구의 풍경을 좋아한다면 포항운하 주변이 걷기에 좋다.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싶다면 호미반도 둘레길 4코스가 좋다. 가볍게 1~2시간 바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눈 오는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

겨울은 자동차와 운전자들에게 몹시 피곤한 계절이다. 도로의 얼음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내리는 눈과 진눈깨비, 건조한 실내 공기까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사고의 위험과 직결된다.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글. 편집실



눈길 대비 요령

① 미끄러짐을 막아라

눈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퀴의 미끄러짐,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다. 스노우타이어는 눈길에서 체인을 장착한 것과 다름없는 제동력을 보여준다. 겨울철 눈길, 빙판 가릴 것 없이 미끄러짐을 줄여 준다. 스노우타이어의 비용이 부담된다면 스노우체인도 좋다. 스노우체인은 눈길에서 확실하게 안전성을 올려준다.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스프레이형 체인도 좋다. 간편하게 부리는 형태로 지속시간은 짧지만 성능은 확실하다.

② 눈이 오면 감속

눈길의 차량 미끄러짐은 운전을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면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다. 눈이 온다면 차

량의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자.

다음으로 운행 시 급출발과 급정거는 절대 금물이다.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3~4회에 걸쳐 나누어 밟고, 정차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활용하고,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이용해 천천히 멈춰서는 것이 좋다.

③ 쌓인 눈은 반드시 털고 출발!

눈이 쌓인 차는 반드시 눈을 모두 털어내고 출발해야 한다. 유리창 뿐만 아니라 지붕에 쌓인 눈도 털어내야 한다. 주행 중 지붕에 쌓인 눈이 떨어진다면 시야를 막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에 쌓인 눈을 털어낼 때에는 미리 차량의 히터를 가동시키면 쉽게 눈을 쓸어 낼 수 있다. 스노우 브러시나 성애 제거용 도구를 활용해 눈을 치우면 좋으니 눈이 오기 전에 구비해 두는 것도 좋다.

겨울철 차량 관리

① 날씨가 춥더라도 세차는 필수

겨울철 도로 위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눈은 차량에 쉽게 달라붙는다. 이런 물질들은 차량의 도장면을 손상시키고, 부식을 촉진한다. 특히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켜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세차 시에는 차량 하부까지 꼼꼼하게 세척해 주어야 한다. 내 부도 히터 사용 등으로 인해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다. 적절한 필터 교체와 함께 외부 순환기 활용, 차량 개폐 등을 통해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② 부동액과 냉각수 점검

겨울철 냉각수도 필수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냉각수가 얼 수 있다. 냉각수가 얼지 않기 위해서는 어는 것을 방지하는

부동액이 포함된 냉각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부동액이 포함된 냉각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겨울철 냉각수를 점검해 어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와이퍼와 워셔액 확인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 시간이 길 경우에는 가급적 와이퍼를 세워 유리창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다.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와이퍼 블레이드면이 유리에 얼어붙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셔액은 겨울용으로 준비해 채워 넣도록 하자. 기온이 떨어질 경우 일반 워셔액은 유리창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다. 겨울철 도로 위에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워셔액이 꼭 필요하다.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Vol.18

중앙회

① 2024 키르기스스탄 새마을교육(24.11.12.)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초청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부터 시범마을 4개를 선정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이번 교육에 공무원, 마을지도자 등 18명을 파견했다. 교육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과 추진 전략, 성공 사례 공유,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및 현지화 방안을 모색했다.



②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24.12.18.)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2024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소개하고 차세대 글로벌 새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배우고, 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③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 및 연말평가대회(24.12.26.)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2024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 및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72개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와 회원 등 36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72개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우수 동아리 시상식에서는 신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회원 35명)가 대상을 수상하여 중앙회장 표창과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신라대 새마을동아리는 교내 플로깅, EM흙공 만들기,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어르신 음식 나눔,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④ 현충원 참배(25.1.2.)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께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중앙회원단체장과 김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울시새마을회장단, 새마을교통봉사대장,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한 후,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보국하겠다'라는 내용을 적고 참배를 마무리했다.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새마을정신으로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세상과 인류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 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서울 빛나는 새마을여인대회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원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새마을여인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울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체험수기 발표, 화합 한마당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동희 부녀회장은 "서울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함께한다면 2025년도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늘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시부녀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부산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현장 점검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부산 새마을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시 백옥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백옥자 부산시새마을회장, 허정태 협의회장, 김선희 부녀회장을 비롯해 구 군새마을 회장단과 사무직원 27명이 참여해 마을의 도로포장 현장과 비기림하우스 3개 동을 점검하고, 마을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간식을 선물했다.

대구 세대공감 워크숍·송년의 밤



직장·공장 대구시협의회(회장 권기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구군직장협의회 회원사와 시운영위원,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과 회원사들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워크숍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권기준 직장·공장 대구시협의회장은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세대공감 및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 2024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인천시새마을회(회장 이항일)는 지난해 12월 5일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감, 인천지역 군·구청장, 시의원 등 각계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항일 인천시새마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인천의 꿈인 글로벌 TOP10 도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미래로, 세계로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물품 전달 및 차봉사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생수, 컵라면 등 2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5일간 5.18민주광장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차봉사를 실시했다.

대전 2024 송년 불링대회



대전시새마을회(회장 박영복)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성불링장에서 시회장단, 이사, 구회장단, 사무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대전시새마을회 송년 불링대회'를 개최했다. 박영복 대전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시구임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계기로 2025년에도 국민운동단체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청년이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시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울산 2024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해 11월 21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부녀회(회장 김숙자)를 비롯해 회원단체, 청년새마을, 다문화주부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펼쳤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580세대에 전달됐다. 김숙자 부녀회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 훈훈한 온기나눔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연말을 맞아 연탄을 연료로 살아가는 분께 한 장의 연탄에 따뜻한 이웃사랑과 훈훈한 정을 담은 온기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조치원읍협의회(회장 박성규)와 부녀회(회장 채의순)는 남녀지도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 6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주민 안녕과 지역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장소 7개소에서 1,6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따뜻한 떡국을 끓여 대접했다.



경기 2024 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이천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김광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김성중 경기도행정1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 내·외빈과 남녀지도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한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합시키는 함께 새마을, 미래를 준비하는 새마을, 세계로 나가는 새마을'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강원 2024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남녀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홍순선 강원도새마을회장은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도민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훈장(철원 이애숙, 평창 김강석)을 포함해 114명에게 정부포상 및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충북 2024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해 11월 28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북 1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청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남재호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은 대회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인구 감소,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도전 속에서 더 창의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이 앞장서고, 녹색·건강·문화 중심의 새마을운동을 실천하자"라고 강조했다.



충남 2024 충청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라오스국제협력사업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규)는 지난해 11월 2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청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충남새마을회는 충남도청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시 쌍텅구 싹판나마을에서 도회장단을 비롯한 도새마을회 이사들과 시·군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했다.



전북 2024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 민생상생 결의대회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 일원에서 남녀지도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새마을운동,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2024 전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새마을 민생상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대학동아리 및 청년연대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함께 펼치는 MZ새마을운동 연말평가대회'도 개최했다.



전남 2024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대회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해 11월 2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22개 시군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고(회장 백영자)는 지난해 11월 11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문고지도자 및 수상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2024 경상북도새마을회지도자대회·경상북도청년연합회 발대식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서중호)는 지난해 12월 4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상북도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전인수)도 지난해 12월 27일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 조성현 협의회장, 도영순 부녀회장, 정은미 직장·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 청년연대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청년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남 2024 경상남도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해 12월 26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최학범 도의회의장 등 내빈과 도내 18개 시군 550여 명의 새마을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새마을운동과 조직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해 시상하고, 유공자와 우수단체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경남 새마을운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제주 제주 농특산물 「감귤」 홍보활동

제주도협의회(회장 변봉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 익산시를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주 농특산물인 '감귤'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제주도협의회와 전북도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각 지역별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협의회는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홍정욱)가 주관한 연탄 나눔 봉사에도 함께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했다.



이북5 2024 이북5도새마을지도자대회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해 12월 6일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2024 이북5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성원 이북5도새마을회장, 마영희 협의회장, 서영미 부녀회장 등을 비롯한 이북5도새마을지도자 130여 명과 김성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기덕영 이북5도위원장(황해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민세홍 황해도중앙도민회장, 윤동진 평안북도중앙도민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유진발재단에 북한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 성금 160만 원을 전달했다.



*시군구 새마을(지)회 우수사업사례집 활동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서울 종로구새마을회



자원재활용 실천 나눔장터

무엇을?

하나, 매달 중고 장터를 열어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물건 재사용
둘, 재활용 생활실천과 수익금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어떻게?

- 중고현웃, 전자제품 물품 구입 후 사용하지 않는 물품 판매
- 장애인, 어르신이 직접 만든 물품 판매 및 체험 실시
- 어린이용 중고물품(아동도서, 학용품, 팬시, 장난감, 운동용품)

Point!

-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 확산
- 재사용, 환경, 나눔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

#탄소중립 #중고장터 #수익금기부

서울 성동구새마을회



새마을과 함께하는 한우데이!!

무엇을?

하나, 마장동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춰 한우의 날(11월 1일)에
한우 소비를 위한 행사 추진
둘, 지역공동사업 추진으로 사회공헌 실현

어떻게?

- 11월 1일 한우데이를 전후하여 3일간 소비 촉진 사업 진행

Point!

- 성동구새마을회와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진행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새마을운동 전개와 사회 공헌 추진

#한우데이 #행사주최 #공동체문화

서울 중구새마을회



사랑의 밀반찬 보내기

무엇을?

하나, 밀반찬 나눔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격려로 삶의 의욕 고취

어떻게?

- 지역주민들과 함께 밀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
- 밀반찬 재료는 전통시장을 통해 구매

Point!

- 새마을가족의 역량을 모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
-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연대감과 전통시장 활성화

#공동체문화조성 #밀반찬나눔 #돌봄사각지대해소

부산 중구새마을회



벗삼아 읽은책 평생 스승(교양도서 교환전)

무엇을?

하나, 알뜰도서 교환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정서 함양
둘,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 수준 향상

어떻게?

- 읽은 책 2권을 새 책 1권으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전 시행
- 교환용 도서가 준비되지 않은 구민을 위해 특가 판매
- 교환전 후 잔량 도서는 동주민센터(새마을문고동분회) 지원

Point!

- 도서교환전 및 독서문화 캠페인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
- 행복한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 독서문화 생활화

#도서교환전 #독서문화저변확대 #문화공동체

서울 용산구새마을회



핸드메이드 '병뚜껑 키링' 만들기

무엇을?

하나, 병뚜껑의 소재 혼용으로 재활용 어려움에 착안 → 업사이클링 추진
둘, 병뚜껑 키링 제작후 기부

어떻게?

- 마을 SNS 및 지인, 주민 등을 통해 리사이클 행사 홍보
- 하트 안에 새마을 마크를 넣어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키링 샘플 제작

Point!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함으로써 환경 오염 감소
- 쓰레기는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통해 '플라스틱 순환' 경제 실천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

부산 서구새마을회



어린이 독서 골든벨 대회

무엇을?

하나, 어린이의 독서 영역 확대와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 골든벨 대회 개최
둘, 가족 간 독서 생활화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사고력 향상

어떻게?

- 초등학교 추천도서 선정 후 난이도별 문제 출제

Point!

- 새마을운동을 통한 도서컨텐츠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독서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정서적 사고력 증진에 기여
-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 및 책 읽기 생활화

#독서골든벨 #가족단위행사 #독서문화



부산 동구새마을회



새마을이동도서관

무엇을?

하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둘, 다양한 신간 도서 구비로 문화 및 독서에 대한 욕구 충족

어떻게?

- 12개동 25개소 거점지역 정기 운행
- 거동 불편자는 세대 방문 서비스 제공

Point!

- 유치원·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하는 도서관 구현
- 일 평균 30명 대출, 도서 50권으로 이용자 많아 소외지역 도서 문화 보급 기여

#새마을이동도서관 #찾아가는도서관 #독서생활화

인천 서구새마을회



캔모아! 사랑모아!

무엇을?

하나,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천
둘, 상가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개선

어떻게?

-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계도 캠페인
- 골목 상가 내 재활용품 수거함 20개소 비치
- 캔 매각 수익금으로 지역 어르신들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Point!

- 모으면 자원! 버리면 오염! 알리기로 마을 주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 계도
-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

#탄소중립실천 #자원재활용활성화 #순환경제홍보

대구 중구새마을회



남산4동 루프탑 가드닝(Rooftop Gardening)

무엇을?

하나, 식물을 재배해 도시 생태계 개선

둘, 용도 없이 비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 텃밭 조성

셋,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도심 경관 개선

어떻게?

-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텃밭 및 화단 관리 시행
- 4월~11월, 주1회 정기적으로 작물심기, 거름주기, 잡초제거 실시

Point!

- 옥상 녹지공간 형성을 통해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기여 및 열섬효과 완화
- 주민들이 텃밭을 함께 가꾸며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

#옥상정원 #녹지조성 #친환경생활 #탄소중립

경기 고양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실천릴레이 1박 2일 새마을캠프

무엇을?

하나, 시민에게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동참하는 계기 마련
둘, 특색있는 새마을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

셋, 새마을지도자 가족 참여 유도를 통한 새마을지도자 자부심 고취

어떻게?

- 새마을가족 및 일반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캠핑장을 활용해 1박 2일 캠프 시행
- 전시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으로 새마을 홍보 효과 극대화
-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Point!

- 새마을지도자간의 유대감 조성 및 자부심 고취
- 새마을운동을 매개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새마을캠프 #새마을홍보 #순환경제홍보

대구 동구새마을회



2050 탄소중립실현 팔공산 행락질서지킴이

무엇을?

하나, 팔공산 국립공원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계도
둘,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홍보

셋, 행락질서지킴이 캠페인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어떻게?

- 22개동 새마을지도자가 매주 일요일 행락질서지킴이 캠페인 실시
- 현수막 게첨, 줍깅 활동, 등산객 대상 종량제 봉투 지급 등 동참 유도

Point!

- 2050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새마을 줍깅데이 홍보
- 행락질서지킴이를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림

#행락질서지킴이 #탄소중립실천 #친환경생활

경기 성남시새마을회



생활환경개선 이동세탁사업

무엇을?

하나,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결 지원
둘, 이불 의류 등 각종 세탁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지원 및 돌봄

어떻게?

- 이동식 세탁차량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세탁서비스 제공
- 부녀회가 매주 각 동별 순회를 위한 봉사조 편성 운영

Point!

-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
-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찾아가는세탁소 #돌봄사각지대해소 #행복한공동체



경기 부천시새마을회



맘과맘(엄마의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을 잇기)

무엇을?

하나, 취약계층 이웃에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상호교류를 확산
둘, 외로운 이웃들에게 소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연결고리 제공

어떻게?

- 정기적인 방문과 활동키트 제공, 공동 수행으로 친밀감 형성
- 손뜨개, 상추키우기, 꽃모종 등 활동키트 제작, 제공
- 소활동 결과물을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 일원으로 자긍심 부여

Point!

- 정기적인 방문으로 안부를 살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함
- 관심있는 소활동 공유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성취감 부여

#고립감해소 #사회안전망

강원 원주시새마을회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상생기

무엇을?

하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
둘, 세대간 교류를 통한 젊은 회원들의 주체성 제고 및 인식 전환 추진

어떻게?

- 원주시새마을 25개 읍면동과 흥업면 지역사회공동체협의체와 함께하는 결합형 활동 시행
- 매년 대학새마을동아리 우수회원에게 장학금 전달

Point!

-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인식 전환으로 젊은층 회원 확보
- 세대간, 지역간 교류를 통한 소통 창구 확보 및 인식 격차 해소

#대학새마을 #새마을운동홍보 #청년새마을연대

경기 화성시새마을회



바이크 피크닉

무엇을?

하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및 캠페인 필요
둘,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위한 자전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어떻게?

- 자전거를 타며 환경을 둘러보고, 환경정화 및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 자전거 타며 관광지, 생활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

Point!

-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전거 캠페인 병행
- 자전거 코스로 지역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자전거 #친환경생활실천 #환경보전 #탄소중립

충북 충주시새마을회



재활용 녹색 행복가게 운영

무엇을?

하나,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둘,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하여 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어떻게?

- 충주시새마을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의류수거·세탁·수선·판매 시행
- 무료 빨래방 운영 및 아이스팩·투명페트병 등 수집 자원화
- 25개 읍면동새마을부녀회 순환근무

Point!

- 자원재활용의 생활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문화 조성

#녹색행복가게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강원 춘천시새마을회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무엇을?

하나, 아이스팩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 해결
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마을지도자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 유도

어떻게?

-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 건조, 재포장을 통해 재활용 실시
- 초·중·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봉사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아이스팩 수요처(닭갈비 업체, 전통시장, 두부공장) 등에 공급

Point!

-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기후위기 극복에 일조
- 재활용 활성화 및 지역 상공인에 대한 구매비용절감

#아이스팩재활용 #친환경생활실천 #탄소중립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집짓기)

무엇을?

하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개선
둘, 재능기부 문화확산으로 새마을운동 위상 고취

어떻게?

- 화재로 전소된 지체장애인가구 대상자 선정
- 직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회원사 재능기부로 공사 시행

Point!

-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
- 민·관이 힘을 모아 나눔문화 확산

#재능기부 #나눔문화 #집짓기



충남 천안시새마을회



탄소중립 실현 나무 심기와 꽃길 가꾸기

무엇을?

하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운동의 일환으로 꽃길 가꾸기 등,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운동 앞장

어떻게?

- 1지도자 1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성성호수공원에 영산홍 3800그루 심기
-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Point!

- 영산홍을 심어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

#나무심기 #탄소중립실천 #자연·생태 보호·관리

전북 군산시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무엇을?

하나, 지역 내 노후주택 시설개선으로 주거환경 향상 및 도시 미관 개선 등,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

어떻게?

- 노후주택에 전기, 수도, 난방 시스템 및 벽, 천장, 바닥 보수 작업 진행
- 협력 파트너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매

Point!

-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연대 및 협력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품질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영향력 증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노후주택보수 #공동체문화조성 #주민참여

충남 공주시새마을회



마을공동체운동 및 자원분리배출 교육

무엇을?

하나, 공동체역식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교육 필요 등, 탄소중립실천 필요성 대두와 자원분리배출 주민 교육

어떻게?

- 관내 39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및 자원분리배출 교육 실시
- 새마을지도자, 이장, 노인회, 청년회 등 주민 대상으로 방문 교육

Point!

- 주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행복한 마을 만드는 계기 마련

#탄소중립 #마을공동체교육 #공동체문화 #주민참여

전남 목포시새마을회



청소년 문화한마당 드림하이 콘테스트

무엇을?

하나,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표출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 등, 자기개발 및 재능발굴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

어떻게?

- 목포 및 전라남도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 개최
- 댄스 및 발라드, 보컬 등의 청소년 경연으로 재능발굴

Point!

-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통한 재능발굴
-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과 함께 지역인재 육성

#청소년축제 #공동체문화조성 #창조적지역문화조성

전북 전주시새마을회



효사랑 어르신 사랑의 삼계탕 나눔

무엇을?

하나,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과 면역력 증진 등, 행복한 공동체 및 어른을 공경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떻게?

-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600인분 나눔
-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행사진행

Point!

- 복지 사각지대 이웃돌봄 확대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 수혜자 어르신 가족 등 참여자 공감심 함양에 기여

#삼계탕 #공동체문화조성 #좋은이웃만들기

전남 여주시 새마을회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무엇을?

하나, 버스 정류장을 청결하게 유지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공간으로 제공 등,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 및 안전의식 UP 캠페인으로 준법질서 지키기

어떻게?

- 권역별관리자를 설정하고 버스 정류장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
- 자체 순회점검반 및 민원접수 창구 상시 운영

Point!

- 쾌적한 도로 환경은 물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
- 시민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

#버스정류장 #공동체문화조성 #교통법규질기



전남 순천시새마을회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무엇을?

하나,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 재활용 증가
둘,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비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감

어떻게?

-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 세척 후 상인회 등에 배부
-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를 통해 아이스팩을 모으며, 아이스팩 수거함도 설치
- 주1회 정기 수거 후 분류, 세척 시행

Point!

- 시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동체 운동

#아이스팩재활용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전남 나주시새마을회



나주시청년새마을연대 “아름다운 동행”

무엇을?

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둘, 청년새마을연대의 활동을 통한 새마을운동 홍보
셋,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

어떻게?

- 경로당, 요양원, 장애시설 등 복지사각 지대를 방문해 문화체험 활동 제공
- 관내 20개 읍면동 순회 활동

Point!

-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제공
-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여 함께하는 공동체운동 활성화

#청년새마을연대 #아름다운동행 #문화체험 #공동체운동

경북 포항시새마을회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

무엇을?

하나,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기계천 하천 생태계 보존 및 환경 개선 필요
둘, 새마을지도자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연대 활성화 필요

어떻게?

- 기계천 일원에서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활동
- 수질정화용 유용미생물군 EM(Effective Micro-organisms)흙공 제작해 하천에 투척
- 환경정화 활동을 연계한 하천 환경 개선 활동

Point!

- 하천 수질 환경 개선
- 새마을지도자 커뮤니케이션 기회 증대 및 연대 강화
- 새마을운동 발상지 지역 환경개선으로 방문객 유치 증대

#하천정화 #EM흙공 #환경정화활동

경북 경주시새마을회



벼룩장터 및 무료도서교환

무엇을?

하나, 사용가능한 재활용품을 저가에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장터 개설
둘, 벼룩장터를 통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나눔공동체 실현

어떻게?

- 벼룩시장 및 무료 도서교환 장터 운영
- 개인 및 새마을, 기업체, 자생단체 등 주민과 함께 사업 진행

Point!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새마을운동과 공동체 유대감 공유
- 자원재활용, 독서생활화,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공동체 인식 확산에 기여

#벼룩시장 #재활용나눔장터 #지역공동체 #나눔실천

경남 진주시새마을회



진주북페스티벌

무엇을?

하나, 학생과 일반인들의 독서함양과 건전한 정서 및 교양 함양
둘, 책과 함께 친화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실시
- 재활용품 수집 및 수집 차량 퍼레이드, 우수 읍면동 시상

Point!

- 책을 입체적으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즐기는 문화 보급
- 건전한 책 읽기 운동으로 소통과 나눔의 장 마련

#북페스티벌 #독서생활화 #책놀이문화축제 #창조적지역문화조성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통영시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무엇을?

하나, 재활용품 수집 및 마을길 환경정화를 통해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선순환
둘,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어떻게?

-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실시
- 재활용품 수집 및 수집 차량 퍼레이드, 우수 읍면동 시상

Point!

- 시가지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재사용, 재활용, 발생 줄이기 등 3R 운동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과 연대

#자원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자원재활용 #순환경제 실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11+12월호 독자 의견



유재범

대구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의 활약상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미래 이 사회의 주인 공이 될 대학생들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모습, 희망찬 밝은 미래를 기약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네요.



장우익

연말연시 새마을가족이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인사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뜨거운 가슴, 섬 없는 열정과 자부심으로 달려온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더욱 꿀맛 같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미

공장새마을운동의 불씨를 지핀 남자, 손관형 지도자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고 자식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것에 눈물이 났고, 공장새마을 운동에 신용협동조합까지 만드셨다니 집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 존경스러웠습니다.



김덕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해야 할 분리배출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간결하면서 쉽게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중〉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18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중〉을
만나보세요

